

중국기업의 신제도 도입 문화

- 신 회계제도 중심으로

郭在源*

<目 次>

1. 서론
2. 연구배경 및 연구내용
 - 1) 중국의 신회계제도 도입
 - 2) 신회계제도 적용 사례 -중국 G금융
 - 3) 신회계제도 적용 시 예상 변화 위험
3. 연구결과
 - 1) 통일성
 - 2) 정확성
 - 3) 신속성
 - 4) 효과성
4.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글로벌 경쟁과 규제는 회계시장개방을 통하여 회계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계속적으로 회계투명성 요구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2006년 2월에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혼용) 반영한 새 기업회계회칙을 발표하였다. 새 기업회계 회칙은 38개 기업회계준칙 및 48개 공인회계사 감사준칙으로 구성되었다. 새 회계제도의 도입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며 투자자의 결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kwakmn@hanafos.com

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국제관례와 보조를 맞추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기업에 대한 외국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뢰회계제도가 중국 기업현실문화를 토대로 규정을 일부 적용한 '중국식 회계기준'으로 끝날 수 있으며 중국의 전문회계 인력, 당국의 감독능력이 향상 되지 않는 한 국제회계 기준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런 우려는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의 국제회계기준 동등성 평가 1) 초안에도 나타났다. 2007년 1,400상장회사에 적용한 국제회계기준을 일부 중국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한 중국의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 기준내용상으로는 국제회계기준과 동등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회계기준이 2007년부터 적용 되어 아직 회계기준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회계기준 집행의 적정성은 국제회계기준 동등성 평가절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준으로 회계감사기준, 감사품질, 정부의 감독장치(회계법인 감독, 벌칙 등) 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신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까지 IFRS 동등성 평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였고 이는 중국의 회계문화가 국제문화로 변화시켜야 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빅뱅방식으로 2007년 국제회계기준(IFRS)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11년부터 모든 국내 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은 2007년 11월 23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발표하였다. 2)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구축 프로젝트는 금융권을 필두로 1단계 사전컨설팅을 끝내고 2단계 업무설계 및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1단계 컨설팅 수행결과로 도출된 과제들은 즉각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기반한 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상세 과제를 설정하고 미래를 위한 정확한 계획(일정, 소요예산 등)을 수립하여 회계문화를 변경하기에 미흡하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시스

1)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동향 15호〉, 2007. 12.

2) SW산업동향, 〈IFRS 시장동향〉, 2008. 06.

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업무담당자와 시스템 담당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자회사를 가진 국내 그룹의 경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중국의 기업회계제도(2000),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칙(2006), 국제회계기준(IFRS), Local GAAP 등 다양한 회계원칙을 고려하여 재무정보를 산출하여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고 있어 문화적 충격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자회사를 비롯한 그룹 회계기준 통합화 경험, 금융권 재무통합 및 다국적 회계기준 통합시스템 프로젝트를 구현했던 경험, 유럽 및 중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의 벤치마킹 경험, 국제회계기준 1단계 사전컨설팅 수행결과 분석 및 2단계 수행과정을 통해 쌓여진 지식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담당자와 IT담당자들이 숙지하여야 할 신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문화적 대응력을 위한 전략적 목표 및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해 보겠다.

2. 연구배경 및 연구내용

1) 중국의 신회계제도 도입

중국의 신회계제도 도입은 국제회계기준을 단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을 준거 하도록 하여 기업회계기준칙 CAS(Chinese Accounting Standards)를 제정하고 국제회계기준의 원칙뿐만 아니라 특수한 거래에 대한 해석도 포함한다.

중국에서는 <표1>중국회계기준의 적용에서 보는 것처럼 대상기업들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장사는 국제회계기준이 반영된 기업회계기준칙을 적용하고 비상장사는 2000년에 제정된 기존의 기업회계제도(財會(2000)25号)를 적용하는 등 이원화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³⁾ 향후 외국기업 및 비상장사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로드맵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서태정, <한국과 중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계획 및 현황>, 상하이 저널, 2008. 08.

〈표 1〉 중국 회계기준의 적용

구분	내용	비고
기업회계제도 (財會(2000)25号)	2000년 12월 29일 발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총16장(제1장 총칙~제 13장 재무회계보고)로 구성되며 총 160개의 조문이 있음	현재 대부분 비상장사에 적용되고 있음
기업회계준칙 (2006)	2006년 2월 15일 발표 IFRS(국제회계기준)을 대폭적으로 수용 제정22조+ 개정16조= 총 38조로 구성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업회계준칙(2006)의 중요한 내용과 기업회계제도(財會(2000)25号)의 회계기준 항목별 차이를 분석하면 〈표2〉와 같다. 신 회계제도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거나 영업권 상각하지 않는 등 대부분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만 일부 차이점도 있다.

〈표2〉기업회계준칙(2006)과 기업회계제도(財會(2000)25号) 비교

회계기준 주요 항목	기업회계준칙(2006)	기업회계제도 (財會(2000)25号)
재고자산원가의 계상	후입선출법 인정되지 않음	후입선출법 인정
지분투자주식 평가방법	자회사에 원가법 적용	자회사에 지분법 적용
영업권	영업권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이를 상각하지 않음	영업권은 투자계약서 상에 언급된 투자기간 동안 상각
부의 영업권	손익계산서에 당기이익으로 인식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됨
장기할부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현재가치를 고려한 취득원가 인식	현재가치 고려하지 않고 전체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원가 인식
연구개발비	경상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자산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	연구개발비는 자본화가 불가능하며 당기비용으로 인식

토지사용권	자체 사용목적의 경우 토지사용권은 별도로 계상되며 건설 중인 자산과 건물로 대체되지 않음	자체 사용목적으로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되며, 건설완료시 건물로 대체됨
사전영업비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달에 전액 당기비용처리함	영업시작 전 발생비용은 개업비 계정으로 집계한 후 실제 영업을 시작되는 달에 전액 당기비용 처리
자산손상 환입	환입이 불가능	환입 가능
금융비용 자본화	자본화대상이 고정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 등 사용이나 판매가 가능할 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자산으로 확대되었으며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관련 이자비용 모두 자본화 가능	고정자산의 취득과 건설을 위한 특정차입금만 자본화(자산처리)가능
이연법인세 회계	대차대조표법을 이용한 이연법인세 회계를 반드시 적용	이연법인세 회계(이연법, 대차대조표법) 적용 가능
천연자원 회계	석유와 천연가스의 추출에 대한 모든 단계의 회계처리를 규정함	규정 없음

기업회계기준 2006은 한국과 다르게 국제회계기준을 전부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중국환경에 맞게 수정한 부분이 있어 <표 3>과 같이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3>국제회계기준(IFRS)와 기업회계기준(2006) 비교

항목	국제회계기준(IFRS)	기업회계기준 2006
주 재무제표	자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主 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가 主 재무제표
자산손상회계	매 회계기간 말 자산의 손상 징후의 유무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가액을	자산손상은 IFRS와 동일하지만 추후 환입은

	추정하여 자산손상을 인식함. 추후 해당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 이미 인식한 자산감액손실은 환입(이익)처리	불인정
유형자산평가방법	원가 또는 재평가법(재평가허용)	원가법만 허용(유형자산재평가는 불허, 단 자산손상회계는 적용)
연구개발비(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	연구개발활동에 투입된 비용 중에서 자산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 원가 또는 재평가법(재평가허용)	IFRS와 동일하지만 원가법으로만 평가(자산손상회계는 적용)
투자부동산의 정의및평가	임대수익이나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 공정가액 또는 원가법으로 평가	임대수익이나 자본보유중인 자산, 토지사용권 포함 원가법, 단 공정가액법은 객관적/계속적 적용가능시 허용하고 평가방법의 변경 불가

2) 신뢰계제도 적용 사례 -중국 G금융

Banker지에서 발표한 세계 은행 중 총자산이 가장 큰 은행으로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이 급부상되었던 적이 있다. 그 이유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그동안 상계처리 됐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기록되어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은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이익 등 재무적 수치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 중국의 경우 ICBC(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등이 크게 자산규모 순위가 올랐다. 물론 총자산 규모의 순위가 영업활동의 결과가 크겠지만 일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사례가 되는 G금융의 경우 2006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회사의 재무적 수치 요약을 보면 <표 4>G금융의 재무성적을 보면 총자산, 대출, 예적금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G금융의 재무성과

(IFRS Bank-wide data in RMB bn, %)

	2006	2007	2008
Total assets	7,508.8	8,683.7	9,757.1
Total loans	3,631.2	4,073.2	4,572.0
Total deposits	6,326.4	6,898.4	8,223.4
Operating income	181.6	257.4	310.2
Net fee and commission income	16.3	38.4	44.0
Net interest income	163.5	224.5	263.0
Profit after-tax	49.9	82.3	111.2
Coverage ratio	70.56%	103.50%	130.15%
NPL ratio	3.79%	2.74%	2.29%
ROAE	15.37%	16.23%	19.43%
BVPS (RMB yuan)	1.40	1.61	1.80

〈표 5〉 국제회계기준과 신 기업회계준칙(CAS)차이에서 나타나 있듯이 G금융의 경우 중국의 신 기업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와 이에 대한 원인을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실제 적용된 신기업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의 차이는 우선 영업권 상각을 취소하여 발생하였으며(2006년에만 영향을 미침) 주요한 차이는 지분법투자주식, 무형자산 등의 국제회계기준의 특수한 조건에서 재평가로 발생한 이익과 자본의 변동과 같은 회계기준의차이다.

〈표 5〉 IFRS와 기업회계준칙(CAS)차이⁴⁾

(IFRS Bank-wide data in RMB million)

IFRS와 기업회계준칙차이	2006	2007	2008
Profit for the year attributable to equity holders of the Bank under CAS GAAP	48,719	81,256	110,766
Reversal of amortization of goodwill	100		
Recognition of revaluation surplus on	444	264	75

4) G금융의 2006, 2007, 2008년 연차보고서 정리하였음.

disposed assets			
Profit for the year attributable to equity holders of the Bank under IFRSs	49,263	81,520	110,841
Equity attributable to equity holders of the Bank under PRC GAAP	466,896	538,947	603,183
Reversal of amortization of goodwill	371		
Reversal of revaluation surplus	-803	-576	-508
Equity attributable to equity holders of the Bank under IFRSs	466,464	538,371	602,675

3) 신뢰회계제도 적용 시 예상 변화 위험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유럽기업들의 사례와 2007년부터 적용한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기업의 재무적 수치뿐만 아니라 회계정책, 회계프로세스, 회계시스템과 관련 문화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금융권의 경우 재무적 변화와 관리체계의 변화의 폭과 강도가 커서 이를 준비하는 기간과 예산이 상당히 크게 소요된다. 신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화 변화의 원인에 따라 기업이 겪게 되는 4가지 리스크요인을 제시한다.

신회계제도의 채택과 적용은 첫째, 2.2의 G 금융 적용 사례에서 나타난 재무적 수치 변동성 위험이다. 회계기준의 전면적인 변경으로 인한 회계제도의 변경은 회계의 인식 및 측정기준을 변경시키고 새로운 회계적 사건 및 재평가를 통해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된 경우 자산의 가치, 부채의 규모, 이익과 자본의 크기가 변동하게 된다. 이런 재무적 수치의 변동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 공시에 위험을 유발한다. 공시된 재무적 수치의 변동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정보가 주주와 채권자, 재무분석가 등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회계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신회계제도는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지만 국제적인 흐름은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고 중국문화가 국제적문화로 가기위한 걸림돌이다.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및 전 중국에 걸친 자회사의 정보와 데이터가 정제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강조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연결 대상범위가 크게 변동하게 된다. 중국의 자회사를 가진 국내기업이나, 해외에 자회사를 가진 중국기업은 우선적으로 연결대상을 확정하고 연결대상에 대해 그룹의 회계원칙을 통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중간지배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회사 (SPE, Special Purpose Entity)는 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려워 실제 결산수행을 지연하는 원인이 되며 재무보고의 지연을 초래한다. Beaver(1968)에 의하면 재무보고의 지연으로 재무정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의사결정의 질이 나빠지거나 의사결정에 내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신회계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가치평가방법 변화로 인한 위험이 있다. 기존의 회계기준의 경우 역사적 원가를 원칙으로 측정, 평가하고 공시하였지만 신회계제도 (기업회계준칙 2006)에서는 재평가 및 자산손상 등 공정가치 평가 (Fair Value)원칙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나 가치를 표현하는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금액을 시장에서 유통되는 공정가치(시가 등)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요 원칙이다.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시장의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가 되는 통계적 모델을 통해 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별로 복잡한 현금흐름 정보와 유효이자율 정보 등이 생성되어야 한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도 가치 손상여부를 테스트하여 이를 관리하고 관련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 기업의 문화가 변화하여야 하는 지속적 과제가 있다.

넷째, 신회계제도 적용으로 인한 주식공시사항의 증가와 질적 향상도 위험요인이다. 신회계제도에서 공시되는 정보의 초점은 재무제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사항에 있다. 2.2에서 제시한 G금융의 사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였

던 2007년의 주식공시는 2006년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하였다. 공시의 특징은 주요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여부를 주식사항을 통해 상세하고 설명 가능할 수 있게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차원, View와 과목(계정과목만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음)으로 표시 해주며 이에 대한 재무적 수치가 상호검증 된다.

이상과 같이 신회계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문화의 변화 방향과 폭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 회계 실무담당자를 어렵게 한다. 중국 자회사에 대한 그룹의 회계방안 통일, 해외사례 및 국제회계기준 프로젝트 진행경험을 통해 도출된 신회계제도 적용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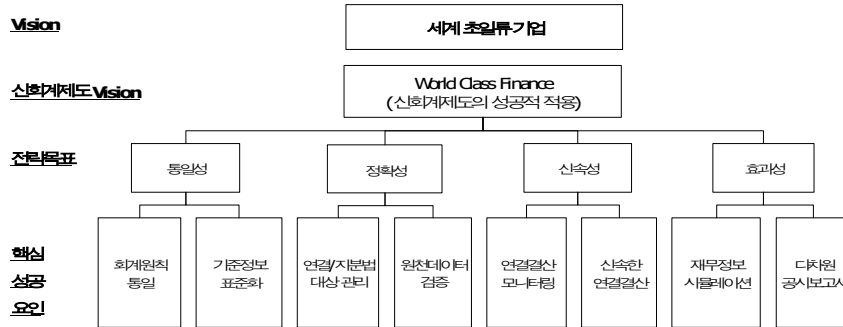
3. 연구결과

신 회계제도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상세 주식정보를 공시하여야 신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제표를 인정받는 것이다.

기업은 준비된 기간 내에 신 회계제도를 채택하여 회계처리하고 기본적인 회계 및 관련 인프라가 신 회계제도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비전과 전략적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과 신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제표 공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고는 <그림 1>에서 제시되는 전략체계도(Stratgy Map)를 통해 신회계제도 달성 비전 및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한다. 본고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 통일성, 정확성, 신속성, 효과성-를 중심으로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전략체계도: 신회계제도 Vision 및 핵심성공요인



1) 통일성

앞서 제시한 4대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기업이 최우선적으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신 회계제도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통일화하는 것이다. 이는 회계원칙을 통일하고 기준정보를 표준화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의 첫 단계는 국제회계기준과 기존의 회계기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차이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표 6>에서 국제회계기준(IAS 38)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회계기준 준칙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회계기준차이 (GAAP)와 실무적용(Practice)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 > 국제회계기준항목별 차이 및 차이유형

항목	국제회계기준	회계기준준칙	차이유형
무형자산(IAS38)			
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은 운용리스로 분류되며 리스사용료는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 함	토지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	GAAP차이
공업산권및 전문 기술(Proprietary Technology), 工業 產權及專業技術	본사 및 자회사간의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당기 수익 비용 처리함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출판권, 토지사용권등을 포함	Practice차이

예를 들어 토지사용권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은 운용리스로 규정하지만 회계기준준칙(CAS)은 무형자산으로 구분하는 등 회계원칙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재무제표를 작성 시조정이 필요하다. 공업산권 및 전문기술의 경우 이에 포함되는 대상범위가 회계원칙 차이가 아니라 실무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 회계기준차이와 실무적용차이가 그룹 내에서 모두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무적용차이는 그룹의 모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적용하려는 자회사들의 스스로의 노력에 그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이 요구된다.

두 번째 단계는 회계차이를 자회사별로 통일하는 작업이다. 국제회계기준(IAS_19) 종업원급여의 경우 유급휴가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1) 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함.

(2) 비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인식함.

그렇지만 회계기준 준칙(CAS)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실제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중국의 자회사들은 천차만별로 적용하고 있다. 대련이나 소주에 있는 자회사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발생을 근거로 유급휴가를 회계처리하고 중경, 불산, 천진 등에 있는 자회사는 실제 지급을 근거로 유급휴가를 인식하며 북경, 청도에 있는 자회사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서로 다른 자회사별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신 회계제도에 적합하게 회계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자회사별로 적용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COA(계정과목, Chart of Account)와 같은 기준정보를 표준화 하는 것이다. 통합 COA는 단순한 계정과목 체계가 아니라 회계적 사건, 회계규칙, 최종보고서 산출, 기간 시스템 데이터 정의까지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기업 문화적 변화다. 따라서 공시보고서-회계적 사건-회계규칙-데이터요건이 통합 COA 정의와 연계되어 검토 분석되고 시스템에 적용가능한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종합적인 “통합COA 정의서”를 산출하고 이를 자회사에 적용한다.

2) 정확성

두번째 리스크 요인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로 변화함으로써 발생된다. 최종적으로 국제회계제도의 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결 대상이 되는 그룹 및 자회사가 모두 포함되고 원천 데이터가 검증되어야 한다.

회계기준원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과 대책의 설문결과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재무제표 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라 가장 우려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분기별 연결결산 및 연결공시기한 단축(45일)과 특수목적회사(SPE)도 연결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5) 이를 실무적으로 구체화하면 연결 및 지분법 대상을 판정하고 판정한 대상의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국내의 연구(강내철 2008)는 연결실체의 자회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회사의 수가 많을 수록 재무보고가 유의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결실체의 복잡성이 클수록 지분법 적용의 적정성 감사절차에 더 많은 감사자원을 사용하게 되어 재무보고가 지연됨을 밝혔다.

연결/지분법 대상을 관리하는 목적은 지분율 및 기타 추가정보를 바탕으로 결산일 이전에 연결/지분법 범위를 사전 파악하여 연결/지분법 대상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상 회사를 결산일 전에 미리 확정하여 결산자료를 조기 확보함으로써 결산일정을 준수하는데 있다.

또한 개별 자회사에서 3.1에서 제시한 신 회계제도로 통일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조정을 모회사에서 하여야 하며 그룹의 모회사에 업무가 추가된다. 개별 자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은 회계 사건도 그룹 전체 관점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으며 개별 자회사 입장에서 결산이 하루 늦어지면 그룹결산 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신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5) 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실무적문제점과 대책, 2008. 8. p.58.

3) 신속성

국제회계기준을 2005년에 도입한 필리핀의 경우 IFRS최초 도입 년도에 40%이상의 기업들이 적시에 공시를 하지 못했다. 물론 기업들은 공시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시실패는 기업의 실패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07년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상장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만 중국 내 외국회사, 비상장회사로의 확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이중으로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기업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은 분기공시 문화다. 공시일정이 이전보다 빨라져서 45일 이내에 분기 공시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시를 위해서는 재무결산을 완료하고(그룹의 경우 개별 및 그룹결산마감 완료)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공시가 가능하다.

회계정보에 대한 적시성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산절차에 대한 업무 및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업무분석을 통해 결산일정을 신속화 할 수 있는 회계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장애구간을 해결하여야 하며 시스템 적으로 결산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해외에 있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연결 및 지분법 대상회사의 결산과정 뿐 만 아니라 각 요구되는 보고서의 진행 정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경고 메일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신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시스템적 모니터링은 주식공시 보고서의 양의 증가나 질적인 증가로 인한 리스크 감소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의 다국적회계기준 전환 프로젝트에서 결산과정 및 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비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120여종 이상의 보고서를 공시 기일 내에 산출할 수 하였다.

4) 효과성

효과성은 가치평가 방법변화로 발생한 문제점과 공시량 증가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성공요인이다. 신 회계제도 적용으로 인한 문화 변화는 기업의 가치창출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 회계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강제적 규제요인

에 의해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효익(Benefits)적 측면, 즉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신회계제도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평가에 있어 원가법이나 재평가법 중의 선택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가능하다. 회계방법의 선택으로 인한 기업의 가치변화는 기업의 재무전략과 연계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에는 현재보다 더 빈번하게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이 필요할 것이며 외부 평가기관이 공정가치 측정을 수행하는 경우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Ernst&Young2005).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유·무형 자산과 투자부동산 등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이 필요하므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공정가치 평가기관에 의한 공정가치 측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⁶⁾

공정가치에 의해 공시된 기업의 가치는 실제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더욱 근접한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 기업의 실제적 가치가 잘 나타나며 이에 대한 합병 거래비용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계 투명성은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고 더 낮은 자본비용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에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며 세금을 감소 해주기도 한다. 신 회계제도의 적용은 기업의 가치를 상향할 수 있는 기회다. 재무적 수치에 대한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무정보시물레이션을 하면 기업은 재무전략을 통해 가치를 향상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G사의 2007년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공시사례를 분석해보면 재무제표 5종류를 비롯하여 주식항목 50여종을 공시하였다. 주식항목 50여 종이지만 실제로 이를 위해 사용된 공시자료에 사용된 재무적 정보를 위해 제공된 표양식의 정보가 150여종이 되고 비 재무적 정보의 양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재무제표 및 공시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으로 재무정보를 관리하여야 한

6) 임승연, 최선화, 송인만, 고승의, 이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에 대한 연구>, 2009.

다. 비교기간(2007/2008), 구분기간(1년미만, 1년이상 등), 가치측정(취득원가, 공정 가치), 세그먼트(기업고객, 개인고객) 및 업종(그룹, 은행, 증권 등), 지역(북동중국, 서남중국 등), 회계사건(취득, 평가, 합병, 매각등) 등의 다차원의 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서 연결정보와 상호검증 할 수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은 국제회계기준에 있어서 신 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빠르게 적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06년 2월에 중국정부가 2007년 개시 재무제표부터 실질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 합치된 회계기준을 상장기업에게 적용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재무성은 2005년 5월부터 IASB와의 검토 방안을 합의하여 2005년 11월부터 공동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2007년부터 상장회사들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국제회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정하였다. (회계기준 준칙 2006) 개념체계에 해당하는 기준 및 구체적인 회계기준서 38개를 2006년 2월 15일 공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전체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현실문화를 고려하여 핵심원칙만을 도입하였다. 이를 이유로 유형자산 재평가와 영업권, 자산손상 등에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만 적용하고 비상장회사 및 외국기업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한국에서 전면적인 국제회계기준 적용은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자회사의 회계원칙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의 G금융사의 사례를 통해 신회계제도와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이익과 자본에 재무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회계원칙의 차이에 의한 재무적 수치는 지속적으로 재무제표의 수치 변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신회계제도 도입과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문화 4대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에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 회계제도 대응 전략체계도를 제시하였다. 전략체계도는 비전,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으로 구성되었다.

4대 위험요인을 대응하기 위해 통일성, 정확성, 신속성, 효과성의 4가지 전략목표와 8가지 핵심성공요인을 제공하였다. 본고에서 제시된 전략목표와 핵심성공요인은 중국자회사를 비롯한 그룹 회계기준 일치화 경험, 유럽의 선진금융기관 국제 회계기준 벤치마킹, 그룹연결 재무제표 산출 및 시스템 구축, 그룹의 재무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재무 전략 방향과 1단계 사전컨설팅과 2단계 시스템 구축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요주제를 대응하여 작성되었다.

중국 자회사들의 회계원칙 적용을 검토한 결과 회계원칙 차이와 실무적용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통일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더욱 중국의 자회사별로 회계원칙 적용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통일이 시급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통합COA를 비롯한 기준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변화로 인해 연결대상의 확대와 연결결산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결 및 지분법 대상을 관리하고 원천 데이터를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통일성과 정확성이 갖춰져야 신속성이라는 재무정보의 적시성이라는 필요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연결결산 담당자는 결산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서의 작성 진행 정도를 상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가치의 변동사항과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다량의 주석정보가 효과적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차원적인 체계를 갖추어 재무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틀릴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전략목표와 핵심성공요인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실무적 경험과 기업의 고충파악 및 해결 수행과정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자회사

를 가진 그룹의 경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중국의 기업회계제도(2000), 중국의 기업회계준칙(2006), 국제회계기준(IFRS), Local GAAP 등 다양한 회계원칙을 고려하고 이를 통일화 하여야 하는 문화적 어려움이 있다.

실무적으로 회계원칙의 통일은 원칙차이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업무프로세스, 시스템구축, 최종 공시자료 작성까지 연계된 일련의 작업이므로 전략적 방향과 핵심성공요인을 수립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회색지대(Grey Zone)이 발생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고 궁극적으로 공시실패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기업들은 신회계제도 도입이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화와 철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본고를 바탕으로 더욱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적 접근방법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길 바란다.

《參考文獻》

- 강내철, 김성환, 〈연결실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재무보고 지연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제 47호, 2008.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 (<http://ifrs.fss.or.kr/ifrs/main.jsp>).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동향 15호, 2007.
- 삼일회계법인, 〈2008 IFRS Survey〉, 2008.
- 삼정회계법인, 〈국제회계기준 요해〉, 2008.
- 서태정, 〈한국과 중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계획 및 현황〉, 상하이 저널, 2008.
- SW산업동향, 〈IFRS 시장동향〉, 2008.
- 오준환, 김호중, 김성남,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수용 수준, 대상 및 시기의 결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5권 제2호, 2006.
- 이용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 우정정보 70호, 2007.
- 이장규, 박승덕, 신현상, 안만호, 이세경, 안상미, 《IFRS, 회계국경이 사라진

- 다》, 교보문고, 2008.
- 이창우, 송인만, 고승의, 박대준, <공정가치 평가지침 및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 방안>, 금융감독원 연구보고서, 2008.
- 임석식, 김경태, 이영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 및 대책>, 회계기준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 임승연, 최선화, 송인만, 고승의, 이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제 47호, 2009.
- 하시모토 타카시, <국제회계기준 대전쟁>, 콜로세움, 2008.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과 주요 5개국 회계제도 비교분석 - 국제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2008.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07.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2006.
- 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자료>, 2007.
- 한국회계기준원,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가칭)의 차이와 영향분석>, 2007.
- 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검토와 영향분석>, 2007.
- 한국회계기준원:K-IFRS 온라인교육홈페이지 (<http://www.kifrsacademy.co.kr>).
-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http://www.kasb.or.kr>).
- 황인태, 한봉희, 강선민, <국제회계기준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9.
- Aisbitt, S., "Assessing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to IFRS on Equity: The Case of the FTSE 100" Accounting in Europe, 2006.
- Beaver, W. H. "The information content of annual earnings announc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upplement, 1968.
- Callao, S., Jarne, J. I., and Laínez, J. A., "Adoption of IFRS in Spain: Effect on the comparability and relevance of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2007.
- Ernst & Young, "How Fair is Fair Value?", EYGM Limited, 2005.
- IASB. Discussion Paper: Fair Value Measurements "Part 1: Invitation to Comment and Relevant IFRS Guidance" 2006.
- IASB. Discussion Paper: Fair Value Measurements "Part 2: SFAS 157 Fair Value Measurements" 2006.
- IVSC. Valuation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2007.

Horton, J., Serafeim, G., "Market Reaction & Valuation of IFRS Reconciliation Adjustments: First Evidence from the UK" Working Paper, 2007.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IFRS 2006 Survey", 2006.
KPMG. The Application of IFRS: Choices in Practice, 2006.

《Abstract》

Adoption of the New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reflect IFRS(International Finance Reporting Standards)) is expected not only to affect preparation and reporting of financial statements, but also to influence firms' culture in general such as accounting process, information system, and personnel organization significantly.

Unfortunately, companies and accounting firms are likely to fail to precisely predict amounts of impact caused by changes such as consolidated finance statements, valuation method, accounting event management and so forth. Companies need to minimize impact of New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and its risk by taking advantage of experience on Financial Group's Multi-GAAP conversion and benchmarking the best practices in Europe & China's subsidiary company. This study attempts to infer the risk of potential impact of New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adoption on firms'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transparency from analyzing the financial statement data of china's famous Bank case which already adopted the IFRS & New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Also provides companies with 4 strategy plans -Unification, Accuracy, Timeless, Effectiveness-(with Critical Success factor)in order to effectively comply with timely financial report disclosure.

Unless we do not fully recognize and are not well prepared for such risk and success factors of New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adoption, further would notice best way for accounting transparency in the global market.

Keywords : CAS 2006, IFRS, Consolidation, Valuation, Account Event

이 논문은 2009년 5월 07일에 접수되어 2009년 6월 1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